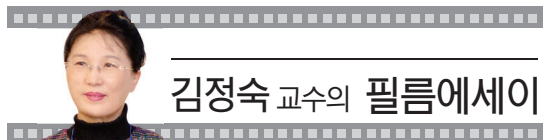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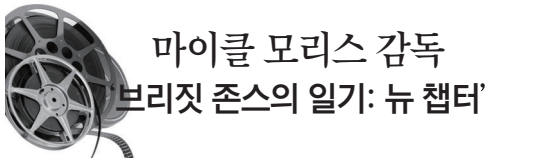


함께한 세월 실감케 하는 친구 같은 영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현대인을 에워싼 수많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종합·대중예술 가운데 핵심은 콘텐츠다. 영화를 만들 때도 감독, 스텝, 배우는 누구든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나리오작가는 그 스토리를 창작해낸 오로지 그 사람뿐이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자로서 작가는 존귀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1995년 한 영국 신문에 익명의 '싱글 여성 칼럼'을 6주간 게재한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진솔함 때문이었다. 글을 쓴 헬렌 필딩(1958~)은 이 칼럼을 근간으로 소설 'Bridget Jones's Diary' (1996)를 출판, 소설은 아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어,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브리지트 존스의 일기' (2001)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브리지트 존스의 일기' (문학사상)를 번역 출판한 것은 한참 후인 2015년 일이다. 헬렌 필딩은 자신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상상력을 더해 브리지트 존스 이야기를 연이어 탄생시켰다.

'Bridget Jones: The Edge of Reason' (1999), 'Bridget Jones: Mad about the Boy'



마이클 모리스 감독 '브리지트 존스의 일기: 뉴 챕터'.

(2013), 'Bridget Jones's Baby: The Diaries' (2016)까지. 영화는 4탄과 3탄을 바꿔서 촬영하다 보니, '브리지트 존스의 베이비' (2016)에 이어 '브리지트 존스의 일기: 뉴 챕터' (2025)의 시나리오 작업도 그녀가 맡아 했다.

영화 '브리지트 존스의 일기: 뉴 챕터'는 제목만 들어도 배우 르네 젤위거를 떠올리게 한다. TV에 명절이나 연휴에 등장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그 가운데 '브리지트 존스의 일기' 시리즈가 심심찮게 등장해서 다.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로코 장르라 스토리는 잊어버리는데, 역할을 위해 살을 찐 배우 르네의 좌충우돌은 폴라로이드 카메라에서 사진이 출력되듯 몇몇 신이 여전히 해마 속에 남아 있다.

브리지트 존스(배우 르네 젤위거)는 4년 전 사랑한 남편 마크 다시(배우 폴린 퍼스)를 잃고 어린 아

들과 딸을 둔 50대 싱글맘이다. 아이들에게 아침을 겨우 해먹이고 잠옷도 안 갈아입은 채 학교까지 라이딩을 하면, 학교 앞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를 만나 참견도 주고 받고 자모회 일을 떠맡기도 하는 일상이다. 남편의 4주기 추모회에 모인 많은 친구들이 브리지트의 싱글 상태를 걱정하며 입방아를 찧는다. 걱정도가 지나쳐 압박감이 엄습해들자, 자신의 의사와 달리 데이트 앱에 가입까지 하는 브리지트. 다른 지인들과 다르게 닥터 롤링스(배우 에마 톰슨)는 일을 권유한다. 그녀의 권유에 따라 방송국 PD직에 복직하면서, 운 좋게 능력 있는 베이비시터를 구해 폭탄 맞은 듯한 집안 꼴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운 좋게 29세의 연하남 록스터(배우 레오 우달)와 자만주를 이루어 로맨스에 빠져들면서 오지랖 넓은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유쾌함도 만끽한다. 그

야말로 자신을 온전히 되찾은 듯 그녀 인생의 뉴 챕터가 펼쳐지려는 참이다. 그러나 자신과 록스터와의 나이차보다 아들 메이블과 록스터와의 나이차가 적은 이 관계는 어딘지 불안하다.

브리지트를 깨우치는 것은 학예회 때 메이블이 부른 노래에도 있었다. 메이블은 아빠가 밤마다 침대 곁에서 불러주었던 노래를 부른다. 브리지트는 이렇게 독백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는 건 잊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떠난 사람을 늘 기억하면서 남은 이들 끼리 잘 살아간다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에게 텍사스 출신 미국 배우가 영국 여성 브리지트 존스와 동일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 (르네 본인도, 작가 헬렌도 부정하지 않은 '천생 브리지트 존스'라는 평가가 있다.) 브리지트가 나무에 오르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며 찢절매는 신이 있다. 와중에도 도와주겠다는 남자들을 "재미있게 나무 타는 중"이라며 거절하는 우스꽝스러운 자존심(?)의 면모가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속마음이 다 들여다보이는 코믹한 귀여움이 밝은 에너지로 치환되는 사랑스러움, 이것이 '브리지트=르네'의 매력이다.

영화 '브리지트 존스의 일기'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관객과 배우들이 함께 나이를 먹는다. 등장 인물들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세월을 실감한다. '휴 그랜트가 저렇게 늙었어! 에마 톰슨은 잘 못 알아보겠네!'를 연신 놀라며 보게 되는 영화다. 어쩌면 20~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의 필자를 보며 똑같이 말할지도...

그러고보면, 함께 세월을 보내는 친구의 얼굴을 거울 삼아 내 얼굴을 읽어내듯 소중한 친구 같은 영화인가 싶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문턱 높은 좋은 정책



취재수첩

정상아

취재1부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시내를 누비는 버스에 붙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안내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달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교통카드로만 버스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카드 이용에 적응

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이 높아진 것이 바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G-패스'다. 교통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G-패스 가입을 서둘렀다.

G-패스는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으로 할인하고, K-패스와 연계해 청년 30%, 성인 20%, 어르신 50%, 저소득 64%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설계됐다.

특히 기존 국토교통부 K-패스 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어린이·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은 광주만의 차별점이다.

도입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3000여명씩 증가하던 K-패스 가입자 수는 G-패스가 도입되면서 올해 1월과 2월 각각 1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일부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 G-패스의 이용 절차가 복잡한 탓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선불카드 사용자의 경우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카드를 구매하고 앱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매달 20~27일 사이 '환급금 받기' 버튼을 직접 눌러야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절차에 지하철역과 편의점에서는 카드 등록 방법이나 환급 절차를 묻는 어르신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남로4가역의 한 역무원은 "카드 등록을 도와드리지만, 환급 기간이 되면 다시 찾아와서 방법을 재차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정부 사업인 K-패스를 기반으로 운영하다 보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

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등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와 G-패스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6%에 달한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촘촘한 지원과 접근성 개선으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G-패스가 광주의 대중교통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